강진에 문 연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문학유파문학관인 한국 시문학파기념관이 지난 5일 강진에 문을 열었다. 총 29억원을 들여 설립한 시문학파 기념관은 전체면적 600㎡의 복층 건물로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한 전시공간과 자료실, 세미나실, 소공원 등을 갖췄다. 〈강진군 제공〉

감정싸움으로 번진 나주시 무원칙 인사

시장 "욕할 것 같으면 열심히 침뱉어라" 비아냥

공무원 노조, 독선적 발언 유감 3일째 1인 시위

나주시가 지난달 단행한 2012년 정기인사의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사권자인 임성훈 시장과 시 공무원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등 극정싸움으로까지 변질됐다.

6일 나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단행한 2012년 정기인사에서 임성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사무관으로 전격 발탁 됐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타 직원에 비해 6급 근속각수도 짧고 주요 보직 근무경험도 부족해 공직 내부에서 '기준과 원칙이 결여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심야시간대에 식당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차원에서 면으로 전출된 상태에서 승진, 시 공무원노조가 적극 반발했었다.

하지만 인사를 발표한 이튿날 임 시장이 곧바로 미국 출장길에 올라 1주일 가량 공직 내부가 떠들썩 한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3월 월례회에서의 임 시장 발언이 공직 내부의 갈등을 재차 촉발시키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 임진광 부패방지위원장은 "전 직원이 모인 정례회에서 임 시장이 '이번 인사는 자기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뿐'이다"며 "'욕할 것 같으면 열심히 침뱉으세요'라고 비아냥 거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직내부가 임 시장의 독선적 발언에 자극받아 지난 2일부터 시 정문 입구 계단에서 이번 인사의 전횡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3일째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사진〉

직원 K(8급)씨는 "임 시장이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경우인 만큼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감 표명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임 시장이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워 노조원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나주시 관계자는"이번 인사부분을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이를 빗대서 얘기한 것이다"며 "조만간 임 시장과 6급 이하 직원들이 허심탄한 대화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주시 공무원노조원들이 6일 시청청사 입구 계단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고 나주시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장성 '호남권 물류센터' 추진 박차

郡-농협, TF팀 구성… 부지 매수방안 등 논의

장성군이 지난달 농협중앙회와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MOU를 체결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실무팀과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친환경 농정과장을 팀장으로 농협 물류센터 관련한 실과소 담당급 직원과 농협중앙회의 사업팀장 등 총 7개반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TF팀은 농협 실무팀과 운영회의를 갖고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에 대해 군 주관 하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상 부지를 협의 매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군 관리계획 변경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물류센터 기본계획서의 조속한 제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과 농협중앙회 농업경제기획부는 8일 농업인 회관에서 예정부지 토지소유자 61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는 총 90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장성읍 유탕리 일원 부지 9만9000㎡에 건축연면적 4만7380㎡ 규모로 건립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지방세정평가 세입분야 영암군 '최우수상'

영암군이 전남도 주관의 2011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입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납세자 편의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그동안 군은 실시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의 홍보와 안내 및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세금 신용카드납부 확대 시행과 텔레뱅킹 이용,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 등으로 체납액을 미리 방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SMS 문자발송 등 홍보에도 힘써왔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인디언 시금치' 겨울철 틈새 소득채소로 각광

이름이 생소한 '인디언 시금치' 등 아열대 채소들이 겨울철 틈새 소득 채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기후 온난화에 대응 다양한 열대·아열대채소를 도입, 우리 지역의 적응성과 소득화 재배기술개발을 3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하는 보통재배는 물론 남부 해안지역에서 겨울철에도 3중 비닐하우스에서 무가온(無加溫)으로 재배가 능한 '인디언 시금치' 1년 2기작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다.

해남군 북평면 아열대채소 재배 농가의 경우 지난해 8월 말부터 3중 비닐하우스에 '인디언 시금치'를 파종,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확하고 있다. 생산량은 10a에서 1t이며 전량 계약재배해 kg당 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박사는"'인디언 시금치'는 무가온 재배로 1년 2기작이 가능하여 수량, 경영비 등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도내 새로운 틈새 작목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순창, 두릅·엄나무 소득사업 지원 확대

순창군이 두릅〈사진〉과 엄나무 등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지금까지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논이나 밭,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추가로 임야에도 지원토록 했다.

군은 임야에 노령화된 밤나무를 벌채하고 두릅이나 엄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올해까지 단기 임산물로 두릅에만 45ha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엄나무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두릅 15ha·엄나무 10ha 등 25ha를 확대해 총 70ha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ha당 1300만원으로, 이중 50%인 65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군은 오는 7~8월께 두릅, 엄나무 등의 2013년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친환경 청정지역에 맞는 자연산 두릅이나 엄나무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산촌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日 원전피해 주민들 "장수에 살고 싶다"

후쿠시마 사태 1년 집단이주 타진

주민 일부 거부감… 허용 여부 관심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11일로 1주년을 맞는 가운데 피해지역 일본 주민들이 장수를 방문, 집단 이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후쿠시마 지역의 교회 목사 A씨가 서울의 개발업체 관계자와 함께 지난달 초 장수군청을 방문해 집단 이주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목사는 장수를 방문하고 귀국, 지역민 40여명과 이주 문제를 협의한 뒤 장수군에 이주여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은 "교회 목사 A씨가 '어린이들이 원전사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들은 안전한 지대에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당시 장수 나들목(IC)과 가까운 계남면과 천천면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지역 중 한 곳에서 90만㎡를 사들여 벼농사나 말·소 사육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승마장,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한국 마사고교,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장수군은 지난해 '말(馬)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돼 2024년까지 1000여억원을 들여 장계와 천천면 등 71만여㎡에 말 관련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본인들은 후쿠시마와 장수군이 산업이나 생활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된 것은 아니어서 집단 이주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영주권 등 행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원전사고에 노출된) 일본인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고도(古都)보존 사업 본격 추진

120여만㎡ '고도지구' 지정… 문화재 보호·육성

금마 도토성 발굴·향교 정비 등 17건 사업 추진

익산시가 경주·공주·부여와 함께 '고도(古都)지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제정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을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년 만에 이들 고도 중에서도 핵심지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눠 지정했다"고 6일 말했다.

이번 고도보존사업 특징은 그동안 규제 위주 문화재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보호와 함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4개 고도의 보존계획안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익산 고도지구(121만3000㎡)에는 금마 도토성(都土城)·익산 향교 등이 들어간다. 또 익산의 경우 이번 수립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에 걸쳐 금마 도토성 발굴과 익산향교 정비사업 등 총 17건의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해 제출한 지정 지구 내 '고도보존계획'을 함께 승인함으로써 지정지구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고도보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 명품수박 우리가 책임진다

생산·연구·지도·유통 '드림팀' 구성

'씨없는 수박'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정읍시가 드림팀을 구성, 명품수박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정읍시는 지난 5일 생산·연구·지도·유통이 혼합된 총 8명으로 '정읍수박 드림팀'을 구성했다.

생산에는 지난해 전국 채소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이석변 정읍수박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최명환 사무국장이, 연구에는 전북도 수박시험장 성문호 박사와 노재종 박사가, 유통에는 원예협동조합 최종일 과장과 이정진 과장, 지도분야에는 김정엽 지도사와 양병만 지도사가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드림팀은 정읍수박 농가에 대한 정기적 순회 지도로 수박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리장애와 바이러스 및 돌발해충 발생시 수시로 현지 포장에 나가 최적의 방제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시기별 개화 상황과 품질분석, 판매가 분석을 통해 식재시기의 지도와 함께 유통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 중순에는 '제9회 정읍 씨 없는 단풍미인 수박 품평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 처음 구성된 '정읍수박 드림팀'이 정읍수박의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경영, 유통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박을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완주 '와일드 체험 프로그램' 공모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는 올해 행사에서 진행할 '와일드 체험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잊혀가는 야생체험이다. 지난해 첫 축제에서는 메뚜기 잡기와 천렵, 벌 잡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축제에서 관광객이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와일드 푸드'도 공모한다.

'와일드 푸드 축제'는 자연속에서 천렵과 캠핑 등을 하며 다양한 야생음식을 맛보는 행사로, 오는 10월 12~1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 백제로 구간에 백일홍 꽃길 조성

익산의 중심 도로인 백제로(22㎞) 구간에 배롱나무(백일홍) 꽃길이 조성된다.

익산시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백제문화권 연결도로인 백제로 구간에 백일홍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00그루에 이어 올해 백일홍 2000 그루를 심을 방침이다.

백제로는 인근의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입점리 고분전시관 등 백제권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명소와 연결되는 도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보건소 의료취약지역 5곳 무료 진료

군산시 보건소(소장 이재문)는 명도·방축도·말도·관리도·두리도 등 의료취약지역인 5개 무의(無醫) 도서를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총 30회 출장을 통해 1106명의 도서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5개 도서 총 222세대 54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11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 2회 무료 한방진료(침 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경찰, 교통문화 향상 홍보활동 전개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지역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홍보시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제경찰 교통관리계는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홍보시간을 갖고 교통문화 향상에 대한 홍보물과 홍보자료를 제작·활용해 모든 시민이 '깨끗한 김제거리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주 서장은 "교통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